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외모 이렇게 신경 쓴 영화는 처음”

영화 ‘뷰티 인사이드’ 이수 역 한효주
수십 명의 배우와 키스신...신기한 경험



매일 자고 일어나면 겉모습이 바뀌는 결정적인 단점 탓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온 남자 우진은 우연히 만난 여자 이수를 보고 첫눈에 반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수가 그런 치명적인 결점을 고백할 만큼 놓칠 수 없는 여자인가”라는 의문은 적어도 그 역할을 맡은 여배우의 얼굴이 스크린을 꽉 채우고 있을 때만큼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정도로 배우 한효주(28)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백감독)에서 화사한 미모를 한껏 흐트러짐 없이 펼쳐놓는다.

한효주는 이에 대한 질문에 “비결은 조맹”이라며 웃었다.

“(광고 감독 출신인) 감독님이 시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 여배우가 안 예쁘게 나오는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촬영을 종일 하더라도 새벽 1, 2시가 넘어가면 바스트샷과 클로즈업은 못 찍는다는 시어였어요. 감독님한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 저도 피부관리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얼굴에 신경 쓰면서 찍기는 처음이에요.”

외모 관리 외에도 한효주는 이 영화에 “제작자의 마음으로 임했다”고 할 정도로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현장을 쫓았다. 이 야기의 단초는 매일 얼굴이 바뀌는 우진이 제공하지만, 그런 설정 때문에 우진 역은 고정된 배우가 아니라 수십 명 배우가 돌아가며 맡았다. 따라서 극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진과 사랑에 빠지면서 혼란을 겪는 이수 역의 한효주다.

“낯설고 설렘이 공존하는 현장이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에게도 처음이라 특별했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야기가 판타지여서 연기가 필요할 걸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기 같지 않더라고요. 이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우진 역은 이범수, 박서준, 이진욱, 김주혁, 김상호, 유연석 등 남자 배우들뿐 아니라 박신혜, 전우희, 유노조, 고아성 등 여자 배우들도 번갈아 맡았다.

한효주에게는 여배우들과 연인 호흡을 맞추는 것 역시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저도 찍기 전에 감정이입이 쉽게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되긴 되더라고요. 워낙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어서 현장에서 오니 그냥 우진이라더라고요. ‘사람이란 성별을 떠나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남자 배우들과 연기할 때보다 여배우와 연기한 다음에 확신이 더 컸어요. 어떤 배우가 나와도 우진처럼 나올 수 있겠구나 하구요.”

‘뷰티 인사이드’에는 1970년대를 풍미한 배우 문숙(61)이 우진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한다. 이 영화로 3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문숙은 “한효주가 매니저를 자처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독특한 설정 덕에 우진과 이수가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지만, 무엇보다 체코 프라하를 배경으로 이수가 여러 모습의 우진과 만들어내는 키스신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을 만하다.

“한국에서 블루스크린을 배경으로 하루에 찍은 장면이예요.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우진 역의 배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찍었어요. 좋기도 하면서 이상하기도 하면서, 이런 건 두 번 다시는 없겠다 했죠. 저에게도 일생일대의 키스신이었어요.”

한효주는 이런 특이한 환경에 놓인 이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이수를 ‘그릇이 큰 여자’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우진을 그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의 크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혼란과 갈등에 아프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고르는지 묻자 대답 도중 ‘베테랑’의 유이인 얘기를 꺼냈다.

“제가 해야 할 부분보다 영화 전체가 주는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관객이 될 수 있는 영화인가 고민하고 따져봐요. 배우로서는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베테랑’을 봤는데 유이인 씨가 정말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건강한 아침', 'EBS 인문학 특강'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올림포스', '고교 Basic Grammar-junior', '문학-알파개념'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음 6월 27일 己未)

- 48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60년생 도모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마련이다. 72년생 합의에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84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6

- 42년생 실제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54년생 직관에 따르면 무리는 없다. 66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8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82, 49

현아, 1년만에 솔로로 컴백...완벽한 19禁

네번째 미니앨범 ‘에이플러스’ 발표

포미닛의 현아가 이달 네 번째 미니앨범 ‘에이플러스’(A+)를 발표하고 1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솔로 컴백을 알리는 ‘19금’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고 “현아가 올여름 가요계 여풍을 잠재울 역대급 섹시미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1분45초짜리로 현아의 과감한 변신을 집약적으로 알리고자 기획 단계부터 ‘19금’을 목표로 제작됐다.

현아는 쇼핑과 드라이브를 즐기는 일상적인 모습부터 은밀하게 파티를 즐기며 거침없이 일탈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금발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채 길거리를 누비고, 수영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상반신 노출을 하거나, ‘파티 걸’로 변



신해 떠들썩하게 놀다가 입으로 지폐를 옮기는 게임을 하고, 남성 과 키스를 하는 듯한 장면을 선보인다.

앞서 현아는 ‘버블팝’, ‘아이스 크림’, ‘빨개요’ 등의 솔로 히트곡을 통해 ‘섹시 아이콘’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소속사는 “이번 영상에서 페넬미를 발산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극대화했다”며 “현아가 이번 앨범 콘셉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음악적인 변신과 함께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카라·레인보우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

10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결그룹 카라(사진)와 레인보우의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가 소속 가수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DSP는 10일 “당사는 오늘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과 관련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DSP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에 근거 없는 루머 양산이나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로 인해 소속 가수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공지했다.

DSP는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당사는 소속 가수들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허위 사실(유포) 및 인신공격을 일삼는 누리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누리꾼은 있지도 않은 기사 내용을 사실처럼 만드는가 하면, 전혀 사실무근인 루머를 관계자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가수에게 이미지 손실과 함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당사는 이 같은 악성 댓글과 루머에 대해 향후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